

[제 3교시]

영어 영역

2026학년도

InDePTh

실전 모의평가 1회차

주요 문항 분석서

-한대산 영어 연구소 저

[주요 해설 문항]

- 21번 (P. 3)
- 23번 (P. 4)
- 31번 (P. 6)
- 32번 (P. 8)
- 33번 (P. 10)
- 34번 (P. 12)
- 36번 (P. 14)
- 37번 (P. 15)
- 38번 (P.17)
- 39번 (P. 18)

21. 밑줄 친 being stressed out is achievement가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erms 'want to win' and 'have to win' influence one another. As 'want to win' exhibits one's desire or a state of mind independent of others' expectations and 'have to win' functions as the term representing the suppression of our will, those should be viewed in light of a connective thread. Being stressed can lead to a better result,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ynamics of performance and the dynamics of stress should be seldom disparate with respect to the multifaceted aspect that possibly regards the difference as the same. To put it in a radical way, being stressed out is an achievement.

- ① our perceptions of 'want' and 'have to' are subtle
- ② stressful part is rather positive for our development
- ③ others' pressure stems from their aspiration to us
- ④ considering a lot of aspects shows a different perspective
- ⑤ we can reap what we have sown with difficulty

(선지 분석)

- ① our perceptions of 'want' and 'have to' are subtle
-> '원한다'와 '해야 한다'에 대한 인식은 미묘하게 차이난다.
- ② stressful part is rather positive for our development
-> 스트레스적인 부분은 오히려 우리의 성장에 긍정적이다.
- ③ others' pressure stems from their aspiration to us
-> 다른 사람들의 압박은 그들의 우리를 향한 열망에 기인한다.
- ④ considering a lot of aspects shows a different perspective.
-> 많은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은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 ⑤ we can reap what we have sown with difficulty
-> 우리는 우리가 어렵게 일궈낸 것을 수확할 수 있다.

정답: ⑤번

(핵심 표현)

exhibit: 나타내다
function: ~기능을 하다
suppression: 억압
in light of: ~를 고려하여
connective thread: 하나로 엮는 핵심 요소
seldom: 거의 ~않다
disparate: 서로 다른
with respect to: ~의 관점에서
multifaceted: 다각적인
reap: 수확하다

(지문 알아보기)

The terms 'want to win' and 'have to win' influence one another.
'이기고 싶다'와 '이겨야 한다'라는 용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 'want'와 'have to'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임을 암시한다.

As 'want to win' exhibits one's desire or a state of mind independent of others' expectations and 'have to win' functions as the term representing the suppression of our will, those should be viewed in light of a connective thread.

'이기고 싶다'는 개인의 욕망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독립적인 정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이겨야 한다'는 우리 욕망의 억압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기능함에 따라 그것들은 공통된 하나의 범주를 고려하여 보여져야 한다.

-> 'want'는 개인의 욕망 (타자 개입 X) / 'have to'는 개인의 욕망 억압 (=타자 개입 O) 의 관계를 그렸다. 두 요소는 타자의 존재에 따라 나뉘는 것들이기에 공통적인 '타자의 존재'라는 connective thread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Being stressed can lead to a better result,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ynamics of performance and the dynamics of stress should be seldom disparate with respect to the multifaceted aspect that possibly regards the difference as the same.

스트레스 받는 것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수행 능력의 역학과 스트레스의 역학 사이의 차이점은 아마 다른 것을 같은 걸로 간주할 다각적 측면의 관점에서 거의 다르지 않아야 한다.

-> 스트레스 받으면 결과가 좋다고 언급했다. 퍼포먼스와 스트레스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했으므로 결국 같은 셈이다. 즉 스트레스가 상승하면 결과가 좋아진다는 뉘앙스이다.

To put it in a radical way, being stressed out is an achievement.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성취이다.

-> 앞선 문장에서 스트레스와 퍼포먼스 (수행 능력) 사이에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으므로 밑줄 표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 해당 지문은 스트레스가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작성한 글인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퍼포먼스의 역학과 스트레스의 역학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퍼포먼스와 스트레스는 같은 카테고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카테고리'는 지문의 'should be viewed in light of a connective thread'와 'seldom disparate with ~ regards the difference as the same'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차이점을 공통점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다각적 관점의 측면에서 보면 같다고 하는 것이니 다각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스와 퍼포먼스 (수행 능력) 이 같은 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통점을 지니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수행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와 수행 능력 사이의 관계가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수행 능력 사이의 관계이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을 지문에서 찾아야 한다. 'Being stressed can lead to a better result'와 'being stressed out is an achievement'라는 부분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better result로 이어지거나 / achievement이거나 두 경우가 존재한다고 한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better result와 achievement 사이의 공통점을 추출했을 때 알 수 있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답은 5번, 어렵게 일궈낸 것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수확할 수 있다 (=다 돌아오게 할 수 있다)가 된다. 여기서 수확한다는 것의 뉘앙스는 수행 능력의 평가와도 같은 맥락을 지니는데, 다 돌아오게끔 할 수 있다는 말이니 힘들었던만큼 본인에게 이득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수행 능력이 좋아짐을 암시한다. 결국 ⑤번이 지문의 논지와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reciprocal action of pieces of information in the text implies the presence of context, which is constructed through intricate logical movements and derived from the interwoven structure of textual details that makes it critical when addressing complicated logical structure. "A is B. That is why A is C." In this example, it is crucial to weigh the importance of any pieces of information, and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jud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One might ask whether there is any sign of interaction, or a context involving 'B' and 'C,' but with respect to 'A,' both 'B' and 'C' suggest that they are properties or characteristics of 'A,' and the curiosity resolves. However, for in-depth sight overall, it should be asked which comes first; 'B' or 'C.' The answer is that they are equal and that the only other structure that exists is 'Situation-Analysis.' Such structure induces readers to consider the 'Situation' first and 'Analysis' second as suggested analysis cannot be meaningful without given ideas. In that aspect, whether it is a situation or not can decide whether it is significant or not.

- ① suggested situation and analysis making context relevant
- ② context constructed by partially ambivalent dynamics
- ③ equality of information decided by the presence of idea
- ④ the role of context depending on the inner dynamics
- ⑤ context counting for its relevance to subject matter

(선지 분석)

- ① suggested situation and analysis making context relevant
-> 제시된 현상과 풀이가 맥락을 적절하게 만든다
- ② context constructed by partially ambivalent dynamics
-> 부분적으로 양면적인 역학에 의해 구성되는 맥락
- ③ equality of information decided by the presence of idea
-> 아이디어의 존재로 결정되는 정보 평등성
- ④ the role of context depending on the inner dynamics
-> 내재적 역학에 따라 결정되는 맥락의 역할
- ⑤ context counting for its relevance to subject matter
-> 주제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맥락

정답: ②번

(핵심 표현)

- reciprocal: 상호적인
- imply: 암시하다
- presence: 존재
- intricate: 복잡한
- derived from: ~에서 도출되다
- interwoven: 서로 얽힌
- weigh: 저울질하다
- in-depth: 심층적인
- come first: 중요하다
- induce: 유발하다 (~하게끔 하다)
- significant: 중요한

(지문 알아보기)

The reciprocal action of pieces of information in the text implies the presence of context, which is formed through intricate logical movements and derived from the interwoven structure of textual details that makes it critical when addressing complicated logical structure.

글 속 정보들의 상호 행위는 복잡한 논리 움직임으로 만들어지고 복잡한 논리 구조를 다룰 때 중요하게끔 만드는 글의 디테일의 서로 얽힌 구조에서부터 도출되는 맥락의 존재를 암시한다.

-> reciprocal action = context 있음 / context->서로 얽힌 디테일들로부터 도출되는 것임

=> '맥락'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A is B. That is why A is C."

"A는 B이다. 그래서 A는 C인 것이다."

-> A라는 공통 분모에서 B와 C가 어떤 관계일지 추측해봐야 한다.

=> B와 C는 어떤 관계일까?

In this example, it is crucial to weigh the importance of any pieces of information, and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jud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이 예시에서, 어떤 정보든 중요성을 저울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관계 판단 = 중요성 저울질'이라는 간단하고도 직관적인 포인트가 그려져야 한다.

=> A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B와 C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성을 저울질 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One might ask whether there is any sign of interaction, or a context involving 'B' and 'C,' but with respect to 'A,' both 'B' and 'C' suggest that they are properties or characteristics of 'A,' and the curiosity resolves.

누군가는 상호작용, 혹은 'B'와 'C'를 수반하는 맥락의 단서가 있더라도 한 건지 물을 수 있지만, 'A'의 측면에서 봤을 때 'B'와 'C' 둘 다 'A'의 특성이나 특징을 제시하고(or 제시하기에), 그 궁금증을 해결된다.

-> '어딜 봐서 맥락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A'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B'와 'C'는 'A'의 특성이나 특징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서로 '관계를 떠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답할 수 있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더 나아가, 앞서 '관계 판단 = 중요성 저울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B'와 'C'는 'A'에 대해서 둘 다 특성이나 특징을 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관계는 'A'라는 포괄적 대상에 종속되는 '장치들'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명해진 'B'와 'C' 사이의 관계 (둘 다 'A'의 특성이나 특징이라는 것)는 이제 중요성을 저울질 한다는 맥락이 뒤에 나올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관계 판단 = 중요성 저울질'이라고 하였으니.

However, for in-depth sight overall, it should be asked which comes first; 'B' or 'C.'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심층적인 시야를 위해서는 'B'와 'C'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물어보아야 한다.

-> 역시나 예상한대로 '관계 판단' 맥락 이후 '중요성 저울질' 관련 맥락이 나온다.

The answer is that they are equal and that the only other structure that exists is 'Situation-Analysis.'

답은 바로 그것들은 동등하다는 것이고 존재하는 오직 다른 구조는

바로 '현상-풀이'라는 것이다.

-> 제시된 'B'와 'C' 사이 관계 말고도 '현상-풀이' 구조가 또 다른 구조로 제시되었다. 이는 맥락을 구성하는 'B'와 'C' 예시와 동일한 격을 가지는데, 이는 '현상-풀이' 구조가 'B'와 'C' 구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조임을 이해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현상-풀이' 구조도 현상과 풀이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고 그것들의 중요성을 저울질 할 것이다.

=> 그럼 결국 현상과 풀이 중 뭐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된다.

Such structure induces readers to consider the 'Situation' first and 'Analysis' second as suggested analysis cannot be meaningful without given ideas.

그러한 구조는 제시된 풀이는 주어진 아이디어 없이는 의미가 없기에 독자들로 하여금 '현상'을 우선시하여 고려하고 '풀이'를 그 이후에 고려(= 덜 중요)하게끔 유발한다.

-> 여기서 주어진 아이디어는 '현상'에 대응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풀이'가 유의미해진다는 말이다. 즉 독자들로 하여금 현상이 우선시되고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현상'의 존재 여부가 '풀이'의 유의미함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국 현상이 더 중요하다.

In that aspect, whether it is a situation or not can decide whether it is significant or not.

그런 관점에서, 현상이냐 아니냐는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

-> 앞서 제시된 내용에 살을 덧붙이며 '현상'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 지문은 맥락이 구성되는 방식을 'B'와 'C' 사이의 관계(+ 중요도 저울질)와 '현상-풀이' 구조(+ 중요도 저울질)로 설명하고 있다. 'B'와 'C'는 서로 중요성의 측면에서 동등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반면에 '현상-풀이' 구조에서는 '현상'이 '풀이'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현상'이 '풀이'의 유의미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B'와 'C' 사이의 관계 예시와 '현상'과 '풀이' 사이의 관계 예시가 다른 결을 가진다는 것을 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둘 다 맥락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기능한다. 고로 차이점은 '두 요소가 동등한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되고, 공통점은 '맥락을 구성하는 방식인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답이 2번, '부분적으로 양면적인 역학에 의해 구성되는 맥락'이 된다.

31. Understanding how interwoven factors draw dynamics in composition can require considering others to find out that the integral part of the organizing process involves _____. Machines, comparable to rhetorical devices, are devices or systems that perform a particular purpose or solve problems. Algorithms, which share various characteristics with logical devices under multifaceted aspects, represent an obvious procedure or continuous steps, to suggest a way to control, optimize, and solve a particular problem. Only with these can we make no relevant results at all. Indeed, what connects seemingly independent objects should be put aside for the flow of work to be made. In other words, something that can deliver input and output to one another should be present.

- ① diversities
- ② particularities
- ③ dependencies
- ④ commonalities
- ⑤ complexities

(선지 분석)

- ① diversities: 다양성
- ② particularities: 독특함
- ③ dependencies: 의존성
- ④ commonalities: 공통성
- ⑤ complexities: 복잡성

정답: ④번

(핵심 표현)

interwoven: 서로 얽힌
 dynamics: 역학 (요소들이 서로 제약하거나 상호작용하는 현상)
 composition: 글
 integral: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comparable: 유사한
 rhetorical: 수사적인
 share: (같은 특성을) 공유하다
 multifaceted: 다각적인
 relevant: 적절한
 put aside: ~할 수 있게끔 남겨두다
 present: 존재하는

(지문 알아보기)

Understanding how interwoven factors draw dynamics in composition can require considering others to find out that the integral part of the organizing process involves commonalities.

어떻게 서로 얽힌 요소가 글에서 역학을 만들어 내는지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고려하여 조직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공통성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서로 얽힌 요소 -> 역학) 이해 => 다른 것들 고려 -> 조직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공통점]임을 이해하자.

Machines, comparable to rhetorical devices, are devices or systems that perform a particular purpose or solve problems.

수사적 장치와 유사한 기계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나 시스템이다.

-> '수사적 장치 = 기계'임을 이해하고 둘 다 어떤 목적을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나 시스템이라는 것을 파악하자. 수사적 장치와 기계의 '공통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Algorithms, which share various characteristics with logical devices under multifaceted aspects, represent an obvious procedure or continuous steps, to suggest a way to control, optimize, and solve a particular problem.

다각적 측면의 관점에서 논리적 장치와 다양한 특성을 공유하는 알고리즘은 통제하거나 최적화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명백한 과정이나 연속적인 단계를 말한다.

-> '논리적 장치 = 알고리즘'임을 이해하고 둘 다 어떤 것을 통제/최적화/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앞선 문장과 같이 공통점을 다루고 있다.

=> 수사적 장치와 기계를 'A'라고 가정하고 논리적 장치와 알고리즘을 'B'라고 가정한다면, 'A'는 실질적인 해결을 담당하고 'B'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Only with these can make no relevant results at all.

이것들만으로는 적절한 결과를 아예 만들 수가 없다.

-> A와 B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있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즉, 뒤에 A와 B 사이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주는 어떤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해결해주는 것 사이에는 그 해결책을 해결해주는 장치에게 전달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Indeed, what connects seemingly independent objects should be put aside for the flow of work to be made.

그도 그럴것이, 겉보기에 독립적인 사물들을 연결해주는 것은 일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있어야만 한다.

-> 겉보기에 독립적인 사물들('A,' 'B')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In other words, something that can deliver input and output to one another should be present.

다시 말해, 다른 장치에게 인풋과 아웃풋을 전달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 해결책을 제시하는 'B'가 해결해주는 'A'에게 해결책을 전달하게 해주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장치인 'A'가 통제하고 최적화해주는 'B'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해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 즉, 'A'와 'B' 사이에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글 속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지문에서 수사적 장치(A)와 논리적 장치(B)이고, (A)에는 기계, (B)에는 알고리즘 또한 대응된다. 기계와 알고리즘처럼, 글에서도 수사적 장치와 논리적 장치를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 지문은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 해당 지문은 글 속에서 논리적 장치와 수사적 장치가 역학을 그리는 양상을 기계와 알고리즘이 서로 역학을 그리는 것으로 설명한 글이었다. 단순히 논리적 장치(알고리즘)와 수사적 장치(기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 다 서로를 이어주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바꾸어본다면, '목적 수행 장치 -> 통제/최적화 장치 + 해결책 제시 -> 목적 수행'의 꼴인데, 이를 아까 지문 분석 파트에서 말한 'A'와 'B'로 표현해 본다면 'A->B->A'의 꼴이다. 결국 공통점을 다룬 글이라는 것이다.

32. The discovery that subconscious perception, a par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dilutes perceptual awareness has had far-reaching consequences across social and cultural disciplines where the core ideas are directly related to latent minds and intellectual tendencies. However, such a violation, which includes the idea of involuntary minds and conscious actions, should not be considered _____. The subconscious perspective derives from one's nature and has developed a framework to conduct cognitive processes at an optimal level, jointly with intellectual art. However, intentional action or framework does not seem to influence subconscious awareness, as the case when individuals come across others to judge their personality without realizing that we have certain stereotypes shows. Therefore, providing relevant reasons for weakening the process of perceptual awareness becomes critical for multiple disciplines concerning society and culture and attempting to clarify the route of subconscious violation.

- ① an isolated concept from perceptual awareness
- ② a subordinate idea of the cognitive process
- ③ a fundamental basis of conscious conduct
- ④ a factor that directs perceptual awareness
- ⑤ an idea related to individual value

(선지 분석)

- ① an isolated concept from perceptual awareness
-> 지각적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개념
- ② a subordinate idea of the cognitive process
-> 인지적 과정의 종속적 개념
- ③ a fundamental basis of conscious conduct
-> 의식적 행동의 근본적 기반
- ④ a factor that directs perceptual awareness
-> 지각적 인식을 이끄는 요소
- ⑤ an idea related to individual value
-> 개인적 가치와 연관된 개념

정답: ①번

(핵심 표현)

subconscious: 잠재의식의
 perception: 지각
 decision-making process: 의사 결정 과정
 dilute: 약화시키다
 perceptual: 지각의
 awareness: 의식, 앎
 far-reaching: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discipline: 학문
 latent: 잠재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violation: 침해
 involuntary: 비자발적인
 derive from: ~에서 유래되다
 conduct: 수행하다
 optimal: 최적의
 art: 기술
 framework: 사고의 틀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stereotype: 고정관념
 relevant: 적절한

(지문 분석)

The discovery that subconscious perception, a par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dilutes perceptual awareness has had far-reaching consequences across social and cultural disciplines where the core ideas are directly related to latent minds and intellectual tendencies.

의사 결정 과정의 일환인 잠재의식적 인식이 지각적 자각을 약화시킨다는 발견은 핵심 개념이 잠재의식과 지각적 경향성과 직결되는 사회적, 문화적 학문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잠재 의식 -> 지각적 자각 약화] 발견 -> 지대한 영향

However, such a violation, which includes the idea of involuntary minds and conscious actions, should not be considered an isolated concept from perceptual awareness.

하지만, 비자발적 정신과 의식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는, 그러한 침해는 지각적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개념으로서 여겨지면 안 된다.

-> '그러한 침해' (= [잠재 의식 -> 지각적 자각 약화]에서 잠재 의식이 '약화'시키는 것을 '침해'라고 바꿔 부름) -> 지각적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개념 X = 지각적 의식과 같이 붙어있는 개념
 => 잠재의식이 지각적 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침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러한 침해는 지각적 의식과 붙어있는 개념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The subconscious perspective derives from one's nature and has developed a framework to conduct cognitive processes at an optimal level, jointly with intellectual art.

잠재의식적 관점은 개인의 본성에서 유래되며 지적인 기술과 함께 최적의 수준에서 인지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고의 틀을 발달시켰다.

-> 잠재의식적 관점의 기능: 사고의 틀 발달
 => 앞선 문장에서 말한 '붙어있는'을 '지적인 기술과 함께'에서 다시금 암시한다.

However, intentional action or framework does not seem to influence subconscious awareness, as the case when individuals come across others to judge their personality without realizing that we have certain stereotypes shows.

그러나, 의도적 행위나 사고의 틀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우리가 특정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보여주듯 잠재의식적 앎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 의도적 행위 or 사고의 틀 -> 잠재의식적 앎에 영향 X
 => 앞선 문장에서는 잠재의식적 관점이 지각적 의식과 붙어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문장에서는 지각적 의식은 잠재의식적 앎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 [잠재의식 = 의식에 영향 O / 의식 = 잠재의식에 영향 X]

Therefore, providing relevant reasons for weakening the process of perceptual awareness becomes critical for multiple disciplines concerning society and culture and attempting to clarify the route of subconscious violation.

그러므로, 지각적 자각의 과정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와 문화와 관련되고 잠재의식적 침해의 경로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는 다수의 학문에 중요하게 된다.

-> 첫 문장의 학문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며 잠재의식적 침해의 경로를 명확히 하는 학문에 이 '약화'의 과정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 해당 지문은 잠재의식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글이었다. 정리하자면,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의식은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영향을 미친다'를 지문에 선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침해'와 '지각적 자각 과정의 약화'가 그것들이다. 지문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다음과 같다. "잠재의식과 의식으로 글을 정리하라!"

아래 글을 읽어보자

의사 결정 과정의 일환인 잠재의식적 인식이 지각적 자각을 약화시킨다는 발견은 핵심 개념이 잠재의식과 지각적 경향성과 직결되는 사회적, 문화적 학문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비자발적 정신과 의식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는, 그러한 침해는 지각적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개념으로서 여겨지면 안 된다. 잠재의식적 관점은 개인의 본성에서 유래되며 지적인 기술과 함께 최적의 수준에서 인지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고의 틀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의도적 행위나 사고의 틀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우리가 특정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보여주듯 잠재의식적 앎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지각적 자각의 과정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와 문화와 관련되고 잠재의식적 침해의 경로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는 다수의 학문에 중요하게 된다.

원문의 전문해석인데, 아무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래 글은 어떤가?

잠재의식이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잠재의식과 의식적 행위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침해'는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기술과 함께 사고의 틀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의식은, 아무 이유 없이 마주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보여주듯 잠재의식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므로, 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다수의 학문에 중요하게 된다.

지각적 ~~ 을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 ~~ 들을 '잠재의식적'으로 다 바꾸었기에 조금 더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 아래 글을 한 번 더 보자.

잠재의식은 의식을 약화시킴.
그런 침해는 의식이랑 분리된 거 아님.
잠재의식은 의식이랑 같이 사고의 틀 만들.
근데 의식은 잠재의식에 영향 못 미침.
그래서 의식 약화 이유 찾는 거 중요함.

아주 간단해졌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글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같은 뜻임에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어 "인지적 부담"이 줄어든다. 독해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다.

33. The phrase "I think that you think that I think that you think .." puts forth the essence of game theory. Interaction dynamics between players' growth or decline of status and the context decide the best behavior for the actors and result in a relevant payoff for both of them unless they claim different fixed ideals. When all actors perform optimal strategy, nobody would shift their stances, and it is a 'Nash Equilibrium.' Seemingly straightforward, it might be, but the point is how the term 'optimal' gets defined. The actors involved ought to set conditions under their control if they were to make results rewarding, while the society or the settings envisions the maximized exploitation for the sake of their ends - as Jeremy Bentham'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So, if one insists that the term does not stand for oneself, it implies that he has _____ . [3점]

- ① a similar idea of 'optimal' compared to Bentham
- ② considered it to be at the intersection of two factors
- ③ misunderstood the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and society
- ④ left room for the decline of the outcome for both
- ⑤ judged society to be a threat to his own security

(선지 분석)

- ① a similar idea of 'optimal' compared to Bentham
-> 벤담과 비교해봤을 때 유사한 '최적의'의 아이디어
- ② considered it to be at the intersection of two factors
-> 그것이 두 요소의 교차점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
- ③ misunderstood the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and society
-> 사람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했다
- ④ left room for the decline of the outcome for both
-> 양측의 결과물의 하락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다
- ⑤ judged society to be a threat to his own security
-> 사회가 자신의 안정감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답: ④번

(핵심 표현)

- put forth: 보여주다
- essence: 정수
- dynamics: 역학 (요소들이 서로 제약하거나 상호작용하는 현상)
- result in: ~을 초래하다
- payoff: 보상
- optimal: 최적의
- straightforward: 간단한
- for the sake of: ~을 위해서
- end: 목적
- stand for: ~을 의미하다

(지문 알아보기)

The phrase "I think that you think that I think that you think .." puts forth the essence of game theory.
"나는 너가 내가 너가 내가 ... ~를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이라는 말은 게임 이론의 정수를 보여준다.
-> "I think that you think that .." 이 부분이 게임 이론이랑 관련 있는 소재라는 것을 인지하자.

Interaction dynamics between players' growth or decline of status and the context decide the best behavior for the actors and result in a relevant payoff for both of them unless they claim different fixed ideals.

참여자들의 지위의 상승이나 하락 사이의 상호작용 역학과 맥락은 그 행위자들의 가장 좋은 행동을 결정하고 그들이 다른 고정된 이상향을 주장하지 않는 한 적절한 보상을 초래한다.

->

- 1) '그들이 다른 고정된 ~' 부분에서 '그들'이 지칭하는 대상은 상호작용 역학과 맥락이다.
- 2) 조건을 달며 relevant payoff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 3) 즉, 그 조건대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 relevant payoff를 초래할 수 없다.
- 4) 다시 말해, 다른 고정된 (바꾸지 않을) 이상향을 주장한다면 relevant payoff를 초래할 수 없다.

When all actors perform optimal strategy, nobody would shift their stances, and it is a 'Nash Equilibrium.'

모든 행위자들이 최적의 전략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그 누구도 자신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내쉬 균형'이다.

-> 최적의 전략을 수행하는 것과 앞선 문장에서 언급한 '조건'을 계속 생각해보자.

=> 조건 속 포인트는 같은 이상향을 주장하는지 아닌지이다. 같은 이상향을 주장한다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다른 이상향을 주장한다면 주어지지 않는다.

Seemingly straightforward, it might be, but the point is how the term 'optimal' gets defined.

겉보기에는 간단할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어떻게 '최적의'라는 말이 정의되는지이다.

-> 앞서 언급한 조건과 같이 '최적의'라는 용어에도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The actors involved ought to set conditions under their control if they were to make results

rewarding, while the society or the settings envisions the maximized exploitation for the sake of their ends - as Jeremy Bentham'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제레미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이 사회나 환경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극대화된 이용을 상상하는 반면, 관여된 행위자들은 보람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상황을 그들의 통제 아래 뒀다.

-> 사회나 환경, 그리고 행위자들의 대립 구도를 머릿속에서 그려야 하는 문장인데, 사회나 환경은 최대한 착취하는 것을 원하는 반면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

=> 이 문장은 앞선 문장의 '최적의'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장임을 기억하자. 개인에게 최적이란 어떤 상황을 통제하는 것, 환경에게 최적이란 극대화된 착취를 하는 것이다. '최적'이 다르게 정의된다. 개인과 환경은 '최적'을 다르게 정의한다. 혹은, 원하는 바가 다르다. 다시 말해, '다른 이상향'을 주장한다. 결국,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좋다 VS 안 좋다'로 따진다면 '안 좋다'에 가까운 것이다.

So, if one insists that the term does not stand for oneself, it implies that he has left room for the decline fo the outcome for both.

그래서, 만약 개인이 그 표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가 양측의 결과물의 하락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 이 지문은 개인과 환경 각각이 정의하는 '최적의'라는 용어를 '원하는 바'와 엮어 풀어내었다. 그리고 '최적의'라는 용어에 대한 의견 일치가 생긴다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개인의 입장에서 '최적의'라는 용어가 정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경이나 사회의 입장에서 정의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결국 의견 불일치로 인해 적절한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은 4번, '양측의 결과물의 하락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다'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의 하락은 결과물이 안 좋다는 이미지이다.

34. The reflection on contemporary information inequality ends at the heart of the division of information. Online-centered media have the power to influence the crowd by turning the content into a sensation and are prone to sending the public off to different corners of the social sphere. Ever since the media utilized algorithms, everything became user-centered, implying the well-organized pick of particular information regarding 'trends,' which are _____. Through massive interactions between the user and displayed products, the algorithms constantly conduct machine learning to become much more critical to the satisfaction of user experience. However, the learned so-called 'taste' of the user for choosing information diminishes the importance of being exposed to a wide spectrum of experiences; therefore, it is no lie to say that such a factor directly led to the possibility of no commonly applied version of trends. [3점]

- ① the secondhand not the firsthand
- ② crucial for the user's experience
- ③ always alive not dead
- ④ tuned for social atmosphere
- ⑤ not conventional but modern

(선지 분석)

- ① the secondhand not the firsthand
-> 간접적이지 직접적이지 않다
- ② crucial for the user's experience
-> 사용자의 경험에 중요하다
- ③ always alive not dead
-> 항상 살아있지 죽지 않는다
- ④ tuned for social atmosphere
->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진
- ⑤ not conventional but modern
-> 관례적이지 않고 현대적이다

정답: ⑤번

(핵심 표현)

reflection: 설명
contemporary: 현대의
heart: 어떤 것의 가장 주요 포인트 부분
sensation: 열풍
sphere: 영역
conduct: 수행하다
critical: 중요한
taste: 취향, 선호

(지문 알아보기)

The reflection on contemporary information inequality ends at the heart of the division of information.

현대의 정보 불평등성의 설명은 정보의 분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끝난다.

-> '정보 불평등성 -> 정보 분할'의 구조를 띠는 문장이다.

Online-centered media have the power to influence the crowd by turning the content into a sensation and are prone to sending the public off to different corners of the social sphere.

온라인에 집중된 매체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열풍으로 바꿈에 따라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대중들을 사회 영역의 다른 구석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다.

-> 온라인에 집중된 매체 ->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열풍으로 바꿀 수 있다 -> 그게 대중들을 다른 사회 영역으로 보내버리는 것

Ever since the media utilized algorithms, everything became user-centered, implying the well-organized pick of particular information regarding 'trends,' which are not conventional but modern.

미디어가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래로, 모든 것은 관례적이지 않고 현대적인 '트렌드'와 관련된 특정 정보의 잘 조직된 선택을 암시하는 사용자-중심화가 되었다.

-> '트렌드'와 관련되는 잘 조직된 특정 정보의 선택이 '사용자 중심화'임. (매체가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래로 = 매체가 알고리즘을 활용함에 따라)

Through massive interactions between the user and displayed products, the algorithms constantly conduct machine learning to become much more critical to the satisfaction of user experience.

사용자와 전시된 상품 사이의 막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은 사용자 경험의 만족도에 더욱 중요해지기 위해 머신 러닝을 수행한다.

-> 사용자 중심화란 특정 정보가 선택되고 '트렌드'랑 연관되는 것을 앞선 문장에서 설명했는데, 특정 정보가 선택되는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다. 과정은 막대한 상호작용이고, 이유는 사용자 경험의 만족도 향상이다. 다만 여기서 같이 고려해야하는 점은 '트렌드'라는 용어의 부재인데, 문장에서 함축된 '트렌드'의 기능을 확인하자. 앞선 문장에서 미디어가 알고리즘을 활용함에 따라 사용자 중심화가 되었고 이는 트렌드와 관련된다고 했으므로 '사용자 중심화' -> 트렌드 -> 매체 -> 막대한 상호작용 -> 알고리즘의 머신 러닝 수행 -> 만족도 향상 구조의 사고 체인(chain)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트렌드'는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이 수행한 머신러닝의 일환인 것이다.

However, the learned so-called 'taste' of the user for choosing information diminishes the importance of being

exposed to a wide spectrum of experiences; therefore, it is no lie to say that such a factor directly led to the possibility of no commonly applied version of trends.

그러나, 사용자의 정보 선택을 위한 학습된 일명 '취향'은 넓은 영역의 경험에 노출되는 것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그러한 요소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버전의 트렌드가 없는 것의 가능성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 '학습된 '취향'은 넓은 영역의 경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게 만든다. 그러한 것이 개인 맞춤형 버전의 트렌드로 이끌었다.'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지문은 매체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 넓은 영역의 경험에 노출되는 것의 필요성을 저하시켰다는 것을 주제로 한다. 해당 문항에서 묻는 빈칸의 위치는 '트렌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트렌드가 아닌 '개인 맞춤형'된 알고리즘의 정보 제시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마지막 문장의 세미 콜론 이후를 보았을 때, 그러한 요소(넓은 영역의 경험에 노출되는 것의 필요성 저하)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버전의 트렌드가 없게끔 하였다고 한다. 이는 즉, 트렌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오직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에게 맞춰진 알고리즘의 정보 제시가 오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트렌드라는 말이다. 결국 '매체가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래로' 트렌드의 의미가 변했음을 인지하여 답이 5번, '관계적인 것이 아닌, 변환, 즉, '관계적인 것이 아닌 현대의'가 되어야 한다.

We are living in a society of equal rights, blinded by the idea of justice, and being subject to those who should have reflected our ideas.

- (A) Indeed, when the so-called 'cry for equality' outweighs the idea of genuine equality, polarized ideas become nothing but a deed for political actions.
- (B) Political Correctness, or an idea that stands for the justification for increased rights of the marginalized seems to be the catalyst for an ultimately ideal state of society with which every individual can have a level position in their community, however contradictory these could be.
- (C) To identify those as the weak yet having practical power ought to be considered a double-edged sword in that nothing ensures that their voices will never be exploited by their representatives. [3점]

*marginalized: 소외된 **vested: 기득의

- ① (A)-(C)-(B) ② (B)-(A)-(C)
- ③ (B)-(C)-(A) ④ (C)-(A)-(B)
- ⑤ (C)-(B)-(A)

(보기 박스 알아보기)
 We are living in a society of equal rights, blinded by the idea of justice, and being subject to those who should have reflected our ideas.
 우리는 정의의 개념에 의해 눈이 가려진채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반영했어야 하는 사람들에 통제되고 있다.
 -> 정의의 개념과 생각을 반영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 전반적인 보기 문장의 흐름이 '사회'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인지하자.

(핵심 표현)
 blinded: 눈이 가려진채로
 be subject to: ~에 종속되다 / ~에 통제되다
 reflect: 반영하다
 indeed: 그도 그럴것이 (실제로)
 so-called: 이른바, 일명
 outweigh: 능가하다, ~보다 더 대단하다
 genuine: 진짜의, 진정한
 polarized: 양극화된
 deed: 수단
 catalyst: 촉매
 ultimately: 궁극적으로
 ideal: 이상적인
 level: 동등한
 position: (사회에서의) 지위
 exploit: 착취하다
 representative: 대표자

(각 부분 알아보기)
 (A) Indeed, when the so-called 'cry for equality' outweighs the idea of genuine equality, polarized ideas become nothing but a deed for political actions.
 실제로, 일명 '평등을 향한 외침'이 진정한 평등의 개념보다 더 커지면 극단화된 생각들은 단지 정치적 행동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 평등을 향한 외침과 진정한 평등의 개념은 다른 대상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 평등을 향한 외침의 결과로 정치적 행동이 나타난다.
 *Indeed를 '실제로'라고 해석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만, 뉘앙스가 와달게 하고자 한다면 '그도 그럴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낫다.
 (B) Political Correctness, or an idea that stands for the justification for increased rights of the marginalized seems to be the catalyst for an ultimately ideal state of society with which every individual can have a level position in their community, however contradictory these could be.
 이게 얼마나 모순적일지라도 Political Correctness, 혹은 소외된 자들의 상승된 권리를 위한 정당화를 뜻하는 개념은 모든 개인들이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의 사회를 위한 촉매처럼 보인다.
 ->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개념은 모순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좋지 않은 대상으로 분류된다.
 => 뒤이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개념이 어떻게 좋지 않은지, 그 역효과를 드러내는 문장이 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C) To identify those as the weak yet having practical power ought to be considered a double-edged sword in that nothing ensures that their voices will never be exploited by their representatives.
 그들을 약한자이지만 실제적인 권력(or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무엇도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착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그들'이란 '소외된 자'로 보아야 한다.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착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실제적인 힘을 가진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착취되는지에 관한 흐름이 나와야 한다.

* 해당 문항의 주요 Flow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기) 정의의 개념과 생각을 반영했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필자의 스탠스
 ->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개념의 모순점 지적
 ->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착취될 가능성 언급
 -> 평등을 향한 외침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적 행동
 보기 문장에서 언급하는 '정의의 개념'은 (A)에서 구체화된다.
 보기 문장의 '정의의 개념'은 'cry for equality' 혹은 '평등을 향한 외침'에 대응되며, 이와 반대되는 것이 'genuine equality' 혹은 '진정한 평등'이다.
 보기 문장에서 사회의 세태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띠며 (B)에서 또 하나의 부정적인 대상인 Political Correctness가 언급된다.
 이것이 모순적인 이유에 대한 힌트는 (C)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한 착취다.
 이를 더 구체화하여 나타난 것이 (A)에서 드러나는데, 바로 평등을 향한 외침이 정치적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고로 정답은 ③번이다.

Humans tend to fear the emergence of supernatural beings—such as ghosts—from the darkness. The root of this psychological tendency can be traced back to our genes.

- (A) Our ancestors were highly fragile to survive in the harsh natural world, particularly to wild animals that lurked in the dark. For the sake of survival, we have developed an instinctive fear of the unknown.
- (B) In modern society, this tendency is not confined to the physical realm alone. We still approach occupations, values, and moral perspectives with skepticism and caution. What we need now is not a sureness.
- (C) The mindset allows us to ensure our safety from the risk of failure and protect something necessarily required in our life. At the same time, it keeps us from adventuring into new fields and seizing opportunities.

- ① (A)-(C)-(B) ② (B)-(A)-(C)
- ③ (B)-(C)-(A) ④ (C)-(A)-(B)
- ⑤ (C)-(B)-(A)

(보기 박스 알아보기)
 Humans tend to fear the emergence of supernatural beings—such as ghosts—from the darkness. The root of this psychological tendency can be traced back to our genes.
 인간들은 무서운 곳에서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등장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학적 경향성의 근원은 우리의 유전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어두운 곳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무서워하는 경향성을 ‘유전자’와 엮어 설명하고 있다.

(핵심 표현)
 Supernatural being: 초자연적 존재
 A trace back to B: A의 유래가 B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Ancestor: 조상
 Fragile: 취약한
 Harsh: 혹독한
 Lurk in: 숨어있다
 For the sake of~: ~을 위해서
 Seize: 붙잡다
 confine: 국한시키다
 realm: 영역
 occupation: 직업
 Skepticism: 회의감
 caution: 조심
 sureness: 확신

(각 부분 알아보기)
 Humans tend to fear the emergence of supernatural beings—such as ghosts—from the darkness.
 인간은 어둠속에서 나타나는—유령과 같은—초자연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The root of this psychological tendency can be traced back to our genes.
 이러한 심리적 경향의 뿌리는 우리의 유전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이 유령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유전자에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유전자가 생긴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먼 조상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떠올려도 좋다.
 (A)Our ancestors were highly fragile to survive in the harsh natural world, particularly to wild animals that lurked in the dark.
 우리 조상들은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특히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야생 동물들로부터, 살아남기에는 매우 취약했다.
 For the sake of survival, we have developed an instinctive fear of the unknown.
 생존을 위해, 우리는 미지의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발전시켜왔다.
 ->보기에서는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는데, 그 원인을 생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 The mindset allows us to ensure our safety from the risk of failure and protect something necessarily required in our life.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패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At the same time, it keeps us from adventuring into new fields and seizing opportunities.
 동시에, 이는 우리가 새로운 분야로 모험을 떠나거나 기회를 잡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생존에 유익했음은 확실하지만, 이것이 가진 단점을 언급하며 마무리된다.
 (B) In modern society, this tendency is not confined to the physical realm alone.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물리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We still approach occupations, values, and moral perspectives with skepticism and caution.
 우리는 여전히 직업, 가치관, 그리고 도덕적 관점에 대해 회의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한다.
 What we need now is not a sureness.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다.
 ->이러한 경향(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경향)이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설명한다.
 =>지금 (현대사회의)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다. 즉, ‘불확실성도 받아들여라.’ 라는 필자의 의도도 파악가능하다.

* 보기에서는 어떤 경향을 언급하고 그 원인을 유전자에서 찾는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며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경향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위 지문에서는 그 경향이 현대 사회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풀이를 덧붙이며 과거생존에 유리했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날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글이 마무리된다.
 글의 흐름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
- (2)그 원인이 과거 생존에 유리했음에 있다.
- (3)이것이 장점을 가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거나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등 단점을 가진다.
- (4)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직업, 도덕관 등에도 이런 경향을 대입한다.(과거와 달리 생존과 직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5)따라서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A)-(C)-(B)가 된다.

그 밖에도 'the tendency', 'the mindset' 등에 사용된 정관사 'the'를 활용하는 방법과 언급한 심리적 경향성의 장점 풀이에서 단점 풀이로 맥락이 반전되는 부분 감지, 그리고 위 지문은 원인 파악->적용의 형태를 취하므로 시기 나열상 과거 상황을 언급->현대 사회에 적용해야 함을 근거 장치로 활용해볼 수 있다.

This misplaced belief, consequently, shed light on the unforeseen fields.

Human civilization has often been driven by false beliefs. In some instances, these misguided convictions formed the foundation of cultural development or triggered unconventional interests. (①) Today, we believe that pathogens are transmitted through saliva or air, which was not the case in the past. (②) Miasma, a historical theory that regarded "contaminated or polluted smell" as the cause of disease, was considered a trustworthy explanation in an era when natural sciences were underdeveloped. (③) At the time, it was believed that such threats needed to be prevented by substances emitting strong fragrances that allowed to conceal such a horrific thing. (④) Judgment based on scents slightly seemed plausible but in fact, they were as wrong as believing that thunderstorms are caused by angry gods. (⑤) The interest in other parts related to the scent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conceal unpleasant odors — perfumes. [3점]

*pathogen: 병원체 **saliva: 타액 ***fragrance: 향

(보기 박스 알아보기)
This misplaced belief, consequently, shed light on the unforeseen fields.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결국, 예상치 못한 분야에 빛을 비추었다.
->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어떤 부분과 이어지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분야'가 어디고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근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맥락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핵심 표현)
Conviction: 확신
Trigger: 유발하다
Unconventional: 색다른
Pathogen: 병원체
Transmit: 전염시키다
Saliva: 타액
Contaminate: 오염시키다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Substance: 물질
Emit: (향기 등을) 내다
Fragrance: 향
conceal: 숨기다
Scent: 향기
Plausible: 타당할 것 같은
Irrelevant: 부적절한
Accelerate: 가속화하다
Odor: 냄새
shed: 비추다
Unforeseen: 예상치 못한
Perfume: 향수

(각 부분 알아보기)
Human civilization has often been driven by false beliefs.
인류 문명은 종종 잘못된 믿음에 의해 이끌려왔다.
In some instances, these misguided convictions formed the foundation of cultural development or triggered unconventional interests.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잘못된 확신이 문화적 발전의 토대를 이루거나 색다른 관심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①) Today, we believe that pathogens are transmitted through saliva or air, which was not the case in the past.
오늘날, 우리는 병원체가 침이나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믿고 있지만, 과거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②) Miasma, a historical theory that regarded "contaminated or polluted smell" as the cause of disease, was considered a trustworthy explanation in an era when natural sciences were underdeveloped.
"오염되거나 더러운 냄새"를 질병의 원인으로 간주했던 미아즈마(이론)은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신뢰할만한 설명으로 고려되었다.
(③) At the time, it was believed that such threats needed to be prevented by substances emitting strong fragrances that allowed to conceal such a horrific thing.
당시에는, 그러한 위협은 그런 끔찍한 것을 숨길 수 있는 강한 향기를 내는 물질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당시에는 그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 강한 향기를 내는 물질을 사용하여 이러한 끔찍한 것들을 숨겨야 한다고 믿었다.
(④) Judgment based on scents slightly seemed plausible but in fact, they were as wrong as believing that thunderstorms are caused by angry gods.
냄새를 기반으로 한 판단은 다소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실, 이는 천둥번개가 분노한 신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믿음만큼이나 잘못되었다.
(⑤ This misplaced belief, consequently, shed light on the unforeseen fields.)
이 잘못된 믿음은,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분야에 빛을 비추었다.
The interest in other parts related to the scent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conceal unpleasant odors — perfumes.
향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은 불쾌한 냄새를 가리는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했다. - 향수

* 노골적으로 지시대명사를 활용해 정답의 위치를 도출하라는 문제이다. 'This misguided belief'라는 잘못된 신념이 선지 앞에 먼저 제시되어야하므로 ①, ②번 선지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신념이 병의 원인이 냄새라고 믿었다는 점인지, 그에 따른 치료방안인지를 판단해야한다.
보기의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분야에 빛을 비추었다는 설명'에 주목해보자.
⑤번 선지 뒷문장은 그릇된 믿음이 '불쾌한 냄새를 가리는 향수 기술의 발전을 가속해왔다'인데 이 향수 기술이 보기 마지막의 '예상치 못한 분야'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An emergence of new idea implies the elimination of the previous ones.

On any day of the year, individuals cannot be on time for their schedule if there is no way to calculate a day or a second. Measuring time asks for exquisiteness, and it starts with 'How to measure one second precisely.' (①) Until the beginning of the 20th, humans measured a second by dividing a day (24 hours) by 86400, which is the most direct and simple method. (②) This issue had been studied for centuries with critical views among experts. (③) In 1967, the measurement of time using cesium atoms was discovered about a century after the cesium atoms had been discovered. (④) That was an extremely sophisticated and stable way than the previous one, and is still being used these days. (⑤) Nowadays, scientists are focusing on how to utilize it in other fields, including mobile carriers and financial trade.

*exquisiteness: 정교함

(보기 박스 알아보기)
An emergence of new idea implies the elimination of the previous ones.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은 이전의 것들의 제거를 암시한다.
-> 앞선 맥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언급, 뒤이은 맥락에서는 제거된 이전의 아이디어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핵심 표현)
emergence: 등장
imply: 암시하다
elimination: 제거
calculate: 계산하다
issue: 문제
study: 연구하다
sophisticated: 복잡한, 정교한
field: 분야

(각 부분 알아보기)
On any day of the year, individuals cannot be on time for their schedule if there is no way to calculate a day or a second.
일년 중 어느 날이든, 개인들은 만약 하루나 1초를 계산할 방법이 없었다면 그들의 스케줄에 맞추어 제때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 지문의 소재가 '시간'임을 인지하고 추가적으로 시간에 대한 '계산'임을 파악하자.
Measuring time asks for exquisiteness, and it starts with 'How to measure one second precisely.'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정교함을 요구하며, 그것은 '어떻게 1초를 정밀하게 측정하는가'로 시작한다.
-> 시간 계산에 대한 맥락을 이어나가며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Until the beginning of the 20th, humans measured a second by dividing a day (24 hours) by 86400, which is the most direct and simple method.
20세기 전까지, 인류는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법인 1초를 하루 (24시간)를 86400으로 나누어 1초를 측정했다.
-> 24시간을 86400으로 나누어 1초를 측정했다고 한다.
(②) This issue had been studied for centuries with critical views among experts.
이 문제는 수 세기동안 전문가들 사이에 비판적 시각과 함께 연구되어졌다.
-> 전문가들이 좋게 보지 않았다는 점을 내포한다.
(③ An emergence of new idea implies the elimination of the previous ones.)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은 이전의 아이디어들의 제거를 암시한다.
-> 앞선 맥락에서 '이 문제', 즉, '24시간을 86400'으로 나누는 것이 수 세기간 연구되어졌음을 언급하였다. 다만 이를 비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했어야 했다.
=> 고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맥락임을 파악하고 3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다.
In 1967, the measurement of time using cesium atoms was discovered about a century after the cesium atoms had been discovered.
1967년에 세슘 원자를 이용한 시간 측정은 세슘 원자가 발견되고 대략 한 세기 후에 발견되었다.
-> 1967년에 발견된 세슘 원자를 활용한 시간 측정은 세슘 원자가 발견되고 100년 후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④) That was an extremely sophisticated and stable way than the previous one, and is still being used these days.
그것은 그 이전의 것보다도 더 극심히 정교하고 안정적인 방식이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 그 이전의 것은 24시간을 86400으로 나누어 1초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그것이 대체되었고 오늘 날에도 여전히 세슘 원자를 활용하여 1초를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
(⑤) Nowadays, scientists are focusing on how to utilize it in other fields, including mobile carriers and financial trade.
오늘 날에는, 과학자들이 이를 통신사와 금융 거래를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해당 지문은 24시간을 86400으로 나누어 1초를 측정하는 것과 세슘 원자를 활용하여 1초를 측정하는 것을 대립시켜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여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주제를 가진 글이었다. 이전의 것이 대체되었다는 맥락이 앞서 언급된 바 없고 이후에 대체되는 것을 암시하는 맥락이 언급된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된다.

[기타 해설 문항]

18번 해설 - 글의 목적

문제 지문 및 해석

Hi everyone, this is an official announcement from HDS Bank.

안녕하세요, 여러분. HDS 은행의 공식 안내문입니다.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ustomers attempting to exchange coins at our bank.

최근, 우리 은행에서 동전을 교환하려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owever, we do not offer coin exchange services temporarily as part of our standard operations.

그러나, 우리는 표준 운영의 일부로 동전 교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This policy is intended to facilitate other services and prevent delays. 이 정책은 다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Coin exchanges are only available through self-service machines, such as ATMs and dedicated kiosks. 동전 교환은 ATM이나 전용 키오스크와 같은 셀프 서비스 기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Bank staff are not authorized to handle these exchanges, and customers are encouraged to use the self-service machines.

은행 직원들은 이러한 교환을 처리할 권한이 없으며, 고객들은 셀프 서비스 기계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답: ③번 고객에게 동전 교환을 위한 대안을 고지하기 위해서

Coin exchanges are only available through self-service machines, such as ATMs and dedicated kiosks. -> 고객이 동전을 교환할 방법으로 ATM 및 키오스크를 안내하고 있음 / Bank staff are not authorized to handle these exchanges, and customers are encouraged to use the self-service machines. -> 은행 직원은 동전 교환을 해줄 수 없으며, 고객은 셀프 서비스 기계를 이용해야 함.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고객에게 은행에서 직접 동전 교환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대안으로 셀프 서비스 기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므로 ③이 정답

오답 해설

1. 동전 환전 서비스를 향후 제공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동전 교환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영구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없음. 따라서, 미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님.

2. 동전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동전 환전이 가능한 방법(셀프 서비스 기계 이용)과 불가능한 방법(직원에게 요청)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비교하며 구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은 아님.

4. 은행의 정책 변경을 알리고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책 변경(동전 교환을 은행에서 하지 않음)에 대한 안내는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설명(예: 더 빠른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성 증가 등)이 목적은 아님.

5. 동전 환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전 환전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음.

핵심 어휘)

in-branch 지점내의

authorize 권한을 부여하다

appropriate 적절한

cooperation 협조

19번 해설 - 심경 변화

문제 지문 및 해석

The final buzzer echoed through the gym as the scoreboard displayed a crushing defeat

경기 종료 버저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고, 점수판에는 처참한 패배가 표시되었다.

I sat on the bench, staring at his worn-out sneakers, the same ones I had worn since freshman year

나는 벤치에 앉아 내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이 운동화는 내가 신입생 때부터 신어온 것이었다.

The ride home was silent, his teammates avoiding eye contact, each lost in their own thoughts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그의 팀원들은 눈을 피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The next morning, instead of sleeping in, I laced up my sneakers and headed to the empty court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는 대신 나는 운동화 끈을 묶고 텅 빈 코트로 향했다.

With each shot I took, the memory of the loss seemed to fade, replaced by the rhythm of the bouncing ball and the courage for the next game

내가 슛을 던질 때마다 패배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튀어 오르는 공의 리듬과 다음 경기를 위한 용기로 바뀌었다.

정답 ①번 Defeated → Determined 첫 문장에서 a crushing defeat(처참한 패배)라는 표현과 벤치에서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는 모습은 좌절감(Defeated)을 나타낸다. 마지막 문장에서 the memory of the loss seemed to fade, replaced by the rhythm of the bouncing ball and the courage for the next game 패배의 기억이 사라지고 다음 경기를 위한 용기(courage)가 생기는 과정이 나타남, 이는 Determined(결심한, 각오를 다진) 상태를 의미.

오답 해설

2. Relieved → Angry 처음에 패배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된 상태이므로 Relieved(안도한)가 처음 감정으로 적절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분노(Angry)가 나타나지 않음.

3. Surprised → Inspired 처음 감정이 Surprised(놀란)가 아님 패배에 놀란 것이 아니라 좌절감을 느끼고 마지막에 영감을 얻는(Inspired) 장면이라기보다는 다음 경기를 위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4. Embarrassed → Grateful 패배를 부끄러워하는 장면은 없음. 다음에도 감사함(Grateful)이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5. Regretful → Contented 처음 감정이 후회(Regretful)가 아님 패배에 대한 실망이지만 후회하는 장면은 없음. 마지막에 만족(Contented)하는 모습보다는 결심하는 모습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핵심 어휘)

echo (소리가)울리다

lace up 신발끈을 묶다

silent 조용한

freshman 신입생

crushing 참담한

fade 희미해지다

20번 해설 - 주장 찾기

문제 지문 및 해석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that the most compelling argument is the one grounded in perfect logic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완벽한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은 흔한 오해이다.

While logical consistency is undoubtedly valuable, human communication is not dictated by reason alone

논리적 일관성이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소통은 오직 이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An argument, no matter how rational, is likely to be ignored if it overlooks the emotional mood of the listener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간과하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Conversely,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the fact that an opinion that lacks logical precision but touches the listener's emotions can yield more favorable outcomes

반대로, 논리적으로 정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의견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In numerous instances, fostering kindness proves more advantageous than rigid adherence to logical strictness

많은 경우, 엄격한 논리적 고수보다 친절을 기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

Prioritizing emotional sensitivity often constitutes the more wise course of action

감정적 민감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③번 논리적 결함이 있어도 상대의 감정을 존중해야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 An opinion that lacks logical precision but touches the listener's emotions can yield more favorable outcomes -> 논리적으로 정밀하지 않아도 감정을 건드리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

In numerous instances, fostering kindness proves more advantageous than rigid adherence to logical strictness

-> 논리를 엄격히 따르는 것보다 친절을 기르는 것이 더 유리함. 즉, 논리적 결함이 있어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필자의 주장과 가장 부합함

오답 해설

1. 논리적으로 완벽한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지문에서는 완벽한 논리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 "common misconception(흔한 오해)"라고 말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음.

2. 설득을 위한 논리적 일관성은 감정을 고려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논리적 일관성이 가치 있다고 언급되지만, 지문의 핵심 주장은 논리보다 감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필자의 주장과 다름.

4.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논리적 주장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논리적 주장에 대한 거부감이 언급되긴 하지만, 필자의 핵심 주장보다는 감정적 배려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함.

5.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논리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설득이 불가능하다.

지문에서는 논리적 정당성이 부족해도 감정을 고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필자의 입장과 반대됨.

핵심 어휘)

misconception 오해

consistency 일관성

rational 이성적인

precision 정밀성

resonate with ~을 공감하다

foster 조성하다

adherence 고수

22번 해설 - 요지 찾기
(어휘 정리)
Sustain: 유지시키다
Paid leave: 유급휴가
Implement: 시행하다
Burden: 부담
enterprise: 기업
blindly: 맹목적으로
Eliminate: 제거하다

(지문 분석)

In a capitalist society, companies sustain themselves by developing various survival strategies.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는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개발하여 스스로를 유지한다.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welfare system.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 시스템이다.

Companies provide various welfare policies such as insurance, paid leave, and educational support, to enhance employee satisfaction and increase productivity.

회사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험, 유급휴가, 교육 지원과 같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한다.

These benefits allow companies to gather competitive individuals, thereby surviving through thorough market competition.

이러한 혜택은 회사가 경쟁력 있는 인재(=유능한 인재)를 끌어모아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까지 복지 시스템이 기업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However, implementing such policies generates a considerable financial burden, particularly for small-sized enterprises, and it increases the risk of financial problems greatly.

하지만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며,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재정 문제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복지 시스템의 단점(위험성)이 언급된다.

Thus, instead of blindly expanding welfare policies, companies must seek approaches that provide benefits for both them and their employees.

따라서, 복지정책을 맹목적으로 확장하기 보다는, 회사는 반드시 그들과 그들의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복지 시스템의 위험성으로 맥락이 바뀌었으므로 자칫 그것을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They must pursue greater profits, and this process should not only focus on eliminating immediate risks.

그들은 더 큰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이 과정은 오직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회사는 큰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즉각적인 위험 즉, 복지 제도가 줄 수 있는 즉각적 위험을 제거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If they fail to do so, they will ultimately lose the opportunity to reach their final goal.

만약 그들이 이를 실패한다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기회를 잃게 된다.

->do는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실패하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는데 회사의 최종적인 목표의 존재를 언급해준다.

이 지문은 복지 제도가 회사에게 주는 장점을 언급하며 시작된다. 그러나 복지 제도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 있기에 맹목적으로 복지 제도를 확장하기 보다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다. 이 방법이란 회사가 감당가능한 재정적 부담의 범위 내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직원들에게 이익이 되어 유능한 인재 확보와 생산성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재정적 부담을 어느정도 감수하면서 복지 제도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복지 제도가 줄 수 있는 즉각적 위험(재정적 부담)을 제거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지는 말아야 한다.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장기적 이윤 창출을 목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는 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언급과 '그들의 최종 목표'에 대한 언급은 기업의 (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어느정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가 이윤 창출이며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맥락을 나타낸다.

(오답 선지 분석)

(1)기업과 직원간의 상호 협력은 위험을 감소시킨다.

->상호 협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2)재정 위험 관리는 기업의 주요 관심사이다.

->기업에게 재정 위험 관리가 중요하긴 하나, 궁극적인 주요 관심사는 이윤 창출이며 이를 위해서 재정 위험도 어느정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3)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정답 선지이다.

(4)복지 제도의 다양성은 기업에게 큰 위협이다.

->재정적으로 감당 불가능한 복지 제도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의 다양성 자체가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5)재정적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매력적인 선지이긴 하나,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이고 감당 가능한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여 이익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24번 해설 - 제목 찾기

(선지 분석)

Is Comfort Zone Effective for Human Survival?

안전한 영역이 인간의 생존에 효과적인가?

Comfort Zone: Efficient and Certified Method of Resting

안전한 영역: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식의 쉬기

How We Should Accept Comfort Zone in terms of Efficiency

우리는 어떻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안전한 영역을 받아들여야 할까?

The Need for Comprehensive View on Comfort Zone

안전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필요성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Comfort Zone?

안전한 영역에 대한 주요 문제는 무엇일까?

Humans, who have developed their ability to survive through the complex dynamics of society and harsh restraints of inborn ability, are apt to seek their mental refuge, however irrational it might be. 얼마나 비이성적일지라도, 복잡한 사회 역학과 타고난 능력의 가혹한 제약에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 인간들은 그들의 정신적 피난처를 찾는 경향이 있다.

-> 인간의 특징은 ~~에도 생존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인간의 정신적 피난처를 찾는 경향은 비이성적이라고 한다.

=> '정신적 피난처 찾기 -> 비이성적 (=잘못 된 것)

The complicated concept of such human behavioral tendency aligns with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comfort zone, a setting where one feels as though he is in control.

그러한 인간의 행동적 경향성의 복잡한 개념은 마치 개인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인 '안전한 영역'의 기능적 측면과 일치한다.

-> 그러한 행동적 경향성 = '안전한 영역'의 기능적 측면

=> 정신적 피난처를 찾는 것 = '안전한 영역'의 기능적 측면

An in-depth look at a calm state of mind that influences personal growth shows that it enhances efficiency up to a particular moment for those that one has performed many times, and quite contrary for those that one has never tried.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차분한 상태의 정신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은, 개인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에는 반대지만, 개인이 수차례 행해본 것들에 대해서는 특정 순간까지 효율성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차분한 상태의 정신' = '정신적 피난처를 찾은 것' = '안전한 영역'의 기능적 측면

=> '차분한 상태의 정신'에 대한 이해 = '안전한 영역'의 기능적 측면

=> 수차례 행해 본 것 -> 효율성 증가 (특정 순간까지) / 한 번도 안 해본 것 -> '효율성 증가의 반대' = '효율성 유지 or 하락'

* 해당 지문은 '안전한 영역'을 찾는 인간의 경향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로, '안전한 영역'을 효율성 측면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루는 글은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답이 ㉓번이 된다.

25번 해설 - 도표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하기

1. 수력 발전이 2015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감소했다.

옳은 이유: 도표에서 2015년에는 수력 발전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23년에는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2.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옳은 이유: 도표를 보면 2015년 대비 2023년의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나타난다.

3. 바이오매스의 증가가 미미하여 수력이나 풍력의 지배력을 넘지 못했다.

옳은 이유: 도표에서 바이오매스의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력과 풍력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4. 2023년에 지열 에너지가 바이오매스를 초과했다.

틀린 이유: 도표에서 2023년의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지열보다 많기 때문에 지열 에너지가 바이오매스를 초과했다는 내용은 도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5. 2023년 태양광과 바이오매스를 합한 비율이 수력을 초과했다.

옳은 이유: 도표에서 2023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바이오매스를 합한 비율이 수력보다 높게 나타난다.

핵심 어휘)

comparative 비교의

analysis 분석

renewable 재생가능한

utilization 이용

predominant 뚜렷한

diminish 줄어들다

insufficient 불충분한

supass 능가하다

aggregate 총합

26번 해설

Elon Musk was born in 1971 in Pretoria, South Africa, and learned programming by age 12.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나 12살 때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He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Pretoria briefly before moving to the U.S. for college.

그는 대학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잠시 프리토리아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In 1999, he co-founded X.com, which later became PayPal and was sold to eBay in 2002.

1999년, 그는 X.com을 공동 창립했고, 그 후 PayPal로 발전한 후 2002년에 eBay에 매각되었다.

He founded SpaceX in 2002 to reduce space travel costs, achieving major milestones.

그는 2002년에 우주 여행 비용을 낮추기 위해 SpaceX를 창립했고, 주요 이정표들을 달성했다.

He joined Tesla in 2004, leading it to become the top electric vehicle company.

그는 2004년에 Tesla에 합류하여 그것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시켰다.

He also launched Neuralink, The Boring Company, and took over Twitter (now X)

그는 또한 Neuralink, The Boring Company를 시작했고 Twitter(현재 X)를 인수했다.

선지 가려내기

1. 남아프리카의 한 대학에서 오랜 시간 공부했다. 틀림. "He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Pretoria briefly before moving to the U.S. for college." (그는 대학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잠시 프리토리아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여기서 'briefly'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공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X.com은 시간이 흘러 결국 eBay에 매각되었다. 맞음. "In 1999, he co-founded X.com, which later became PayPal and was sold to eBay in 2002." (1999년, 그는 X.com을 공동 창립했고, 그 후 PayPal로 발전한 후 2002년에 eBay에 매각되었다.) 이 문장에서 X.com이 결국 eBay에 매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SpaceX는 우주여행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설립되었다. 맞음. "He founded SpaceX in 2002 to reduce space travel costs, achieving major milestones." (그는 2002년에 우주 여행 비용을 낮추기 위해 SpaceX를 창립했고, 주요 이정표들을 달성했다.) 이 문장에서 SpaceX 설립 목적이 우주 여행 비용을 낮추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4. Tesla의 창립자는 아니지만, 발전시키는 데 도왔다. 맞음. "He joined Tesla in 2004, leading it to become the top electric vehicle company." (그는 2004년에 Tesla에 합류하여 그것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시켰다.) 여기서 Elon Musk가 Tesla의 창립자는 아니지만, 회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SpaceX를 설립한 지 2년 후 테슬라에 참여했다. 맞음. "He founded SpaceX in 2002 to reduce space travel costs, achieving major milestones." (그는 2002년에 우주 여행 비용을 낮추기 위해 SpaceX를 창립했다.) "He joined Tesla in 2004, leading it to become the top electric vehicle company." (그는 2004년에 Tesla에 합류했다.) 이 두 문장을 통해 SpaceX 설립 후 2년 뒤에 Tesla에 합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어휘)

- briefly 잠시
- found 설립하다
- reduce 줄이다
- vehicle 운송 수단
- institution 기관

27번 해설 - 안내문 해석 문제

정답 1번 참가자는 공항 보안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정독해야 한다. 안내문에서는 참가자가 공항 보안 절차를 안내문이 아닌 비디오를 통해 학습해야 한다고 명시됨. 하지만 1번 문장은 안내문을 정독해야 한다고 잘못 서술하고 있음. 따라서 안내문 내용과 불일치하는 문장

오답 해설

2. 참가자는 보안 규칙 준수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야 한다. 보안 규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문에 있으므로 일치

3. 참가자는 영상을 공항 공식 캠페인 웹사이트에 올려야 한다. 공식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문에 있으므로 일치

4. 이 챌린지는 두 달 후에 종료될 예정이다 안내문 상의 오늘 날짜는 2025년 6월 1일이며, 챌린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인 8월 1일에 챌린지가 종료되는 것이 맞음. 따라서 안내문 내용과 일치

5. 참가자는 챌린지를 완료하면 보안 검색 우선권을 받을 것이다 참가를 완료한 사람에게 보안 검색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치

핵심 어휘)

- security 보안
- initiative 계획
- procedure 절차
- smooth 매끄러운
- demonstrate 설명하다

=====

28번 해설 - K-pop 콘서트 안내문 해석 문제

정답 3번 공연은 해외로까지 생중계된다. 안내문에 Concerts will be streamed live for international fans라고 명시되어 있음 즉 해외 팬들도 온라인으로 공연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안내문 내용과 일치

오답 해설

1 VIP 티켓은 미팅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안내문에 VIP ticket holders must register for the meet-and-greet online라고 명시됨. 즉 VIP 티켓 소지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미팅 등록을 해야 함. 따라서 안내문 내용과 불일치

2 마지막 공연은 2월 24일에 시작된다. 안내문에는 공연 일정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라고만 나와 있음 따라서 안내문 내용과 불일치

4 2월 9일까지 예매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안내문에는 Early bird tickets are available until February 10th라고 적혀 있음. 즉 얼리버드 티켓은 2월 10일까지 구매 가능 그러나 2월 9일까지 구매해야 할인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안내문 내용과 불일치

5 공연은 현장 참석만 가능하다. 안내문에 Concerts will be streamed live for international fans라고 적혀 있음 즉 공연은 현장 참석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도 가능. 따라서 안내문 내용과 불일치

29번 - 문법 적절성 판단

(어휘 정리)

vastly: 대단히

Unaccustomed: 익숙하지 않은

Deliberate: 숙고하다

Underlying: 근본적인

(지문 분석)

The attempt to understand someone begins with the effort to understand oneself.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To understand them is (1) to observe their values, empathize with the life they have lived, and compare it to one's own experiences.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관찰하고, 그들이 살아온 삶에 공감하며,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

Their acquired way of thinking may, at times, feel vastly different from ours,

creating the impression that our way of life is being denied (2) what is a natural step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그들의 습득된 사고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것과 크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이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단계이다.

The crucial thing is to objectively recognize oneself in a state (3) unaccustomed to this process.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Acknowledging one's hesitation in accepting others' ways of life and deliberating deeply on their underlying causes make us open the window of possibility for truly understanding (4)them.

타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망설임을 인정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할 가능성의 창을 열어준다.

In the end, what truly matters is not simply having eyes to look through a window, but having the awareness to find where the window (5) is, which starts from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one's own home.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창문을 통해 볼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의 구조를 이해하여 창문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오답 선지 분석)

(1)to observe: 이해하는 것(To understand)의 is 뒤에 to 부정사 형태로 표현되어 설명을 덧붙이며 공감하는 것(empathize)과 비교하는 것(compare)과도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옳다.

(2)what: '그들의 습득된 사고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것과 크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계'임을 설명하므로 'what' 대신 'which'를 사용해야 한다.

->that 절이 동격이며 2번 선지가 분사구문에 속해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unaccustomed: 'unaccustomed'는 '익숙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이다.

(4)them: 독자가 '타인(them)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재귀대명사가 아닌 목적격 대명사 them이 옳다.

(5)is: '창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술한 문장에서 window에 대한 현재형 be동사를 사용하므로 옳다.

30번 - 맥락상 어휘 적절성 판단

(어휘 분석)

law of demand: 수요 법칙

Normal goods: 정상재

In proportion: 비례하여

Inferior goods: 열등재

Giffen goods: 기펜재

Income effect: 소득 효과

Substitution effect: 대체 효과

Vice versa: 그 역(逆)도 마찬가지이다.

(지문 분석)

We spend lots of time looking for buying groceries at a market, looking for cheaper prices as long as the quality of the goods is ensured for all.

품질이 보장되지만 한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식료품을 살 때 더 저렴한 가격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The law of demand can explain the general form of consumption as such, which means when the price (1)increases, the demand decreases; normal

goods.

수요 법칙은 이러한 일반적인 소비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함을 의미하며 정상재(normal goods)가 해당된다.

But, in the case of inferior goods, occasionally turn into 'Giffen goods,' the products that the price and demand are in (2)proportion.

하지만 열등재(inferior goods)의 경우, 때로는 기펜재(Giffen goods)로 변할 수 있는데, 기펜재는 가격과 수요가 비례하는 상품이다.

A Giffen product describes goods that involve a greater income effect that occurs when the price of the inferior product (3)*increases than the substitution effect, eventually having lower demands, and vice versa.

기펜재는 열등재의 가격이 *감소했을 때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보다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더 크게 작용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그 반대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호작용으로)기펜재는 열등재의 가격이 감소했을 때 수요가 감소한다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For a good to be a Giffen good, it must be an (4)inferior good, and, not all inferior goods are Giffen goods.

기펜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등재여야 하지만, 모든 열등재가 기펜재는 아니다.

The potato during the 19th-century Irish Great Famin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의 감자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의 감자가 기펜재였음을 알 수 있다.

The income of the Irish lower class was extremely limited, so when the price of potatoes (5)increased, they did not buy other foods like meat.

아일랜드 하층민의 소득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감자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들은 고기 같은 다른 음식을 사지 못했다.

As a result, potato consumption increased after the price rose.

그 결과, 감자 소비는 가격 상승 후에 증가했다.

->감자가 기펜재임을 제시했으므로 기펜재는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특성을 지님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기펜재의 가격에 따른 소비의 증가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지문 중반부까지 가격과 소비의 등락에 대한 정보를 선지로 넣어두어 혼란스러웠을 수 있지만 기펜재의 대표적인 예시로 감자를 제시하고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주며, 열등재인 기펜재가 일반적인 수요법칙을 따르는 정상재와는 반대됨을 지문 초반부에 제시했으므로 모든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번 선지가 포함된 문장에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 섞여나와 해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선지를 가려내는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사실 지문의 핵심인 기펜재의 가격과 수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했다.

영어 지문에서 끈금없이 어려운 단어나 현상이 제시되었을 때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유념해야함을 알 수 있는 지문이었다.

(오답 선지 분석)

(1)increases: 정상재는 일반적인 수요 법칙을 따라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므로 옳다.

(2)proportion: 기펜재는 가격과 수요가 비례하므로 옳다. (정상재의 경우 반비례한다.)

(3)increases: 기펜재의 열등재의 가격이 감소했을 때 수요가 감소하므로 'increases'를 'decreases'로 수정해야 한다.

(4)inferior: 때때로 열등재가 기펜재가 된다고 언급되었으므로 모든 기펜재는 열등재이지만 모든 열등재는 기펜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상재는 기펜재의 범주와 관련없다.

(5)increased: 감자가 기펜재임을 제시했고, 기펜재는 가격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므로 옳다.

35번

(어휘 분석)

ice age: 빙하기

Glacier: 빙하

Extensively: 광범위하게

Polar region: 북극 지역

Continent: 대륙

Interglacial period: 간빙기

Persist: 계속되다

Milankovitch Cycles: 밀란코비치 주기

Orbit: 궤도

Axial: (자전) 축의

Tilt: 기울기

Astrophysical: 지구과학적인

(지문 분석)

The Earth's temperature changes so slowly that we cannot perceive it.

지구의 온도는 너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감지할 수 없다. "Gradual cycles" occur during a period of 100,000 years, repeating consistently over time.

"이 점진적인 주기"는 약 10만 년 동안 발생하며 꾸준히 반복된다.

(1)An ice age refers to a period when the Earth's temperature drops,

causing glaciers to expand extensively across the polar regions and continents.

빙하기는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고, 빙하가 극지방과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시기를 말한다.

(2)In contrast, an interglacial period is when an ice age ends, temperatures rise, and a warm climate persists.

반대로, 간빙기는 빙하기가 끝나고, 온도가 상승하고, 따뜻한 기후가 지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3)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periods can be explained by the Milankovitch Cycles, a theory that describes how changes in the Earth's orbit and axial tilt influence climate.

이 두 시기의 상호작용은 밀란코비치 주기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 축의 기울기 변화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4) However, this theory alone cannot account for the rapid global warming these days, making it necessary to explore other causes.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는 최근의 급격한 지구 온난화를 설명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다른 원인을 탐구하도록 만든다.

(5)Due to various astrophysical factors, the Earth's axial tilt gradually shifts, altering the distribution of solar energy.

다양한 지구과학적 요소들로 인해, 지구의 (자전) 축의 기울기는 점진적으로 변하고, 태양 에너지의 분포를 바꾼다.

지구과학적 용어가 많이 등장하여 어휘 자체는 쉽지 않았을 수 있으나, 간빙기와 빙하기의 역학과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충분히 해석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번 지문도 용어에 집중하기 보다는 맥락에 주안점을 두며 풀이하여야 한다.

(오답 선지 분석)

이 지문은

(1)지구의 온도가 천천히 변한다

(2)빙하기에 대한 설명

(3)이와 반대인 간빙기에 대한 설명

(4)빙하기와 간빙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5)그이론의 후속 풀이

의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4번 선지의 경우 지문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최근의 급격한 지구 온난화'를 근거없이 언급하며 밀란코비치 주기의 한계를 언급하므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40번 해설 - 문단 요약

(어휘 분석)

educational manner: 교육적 방식

latent social actors: 잠재적인 사회적 행위자

Treating students only in an educational manner at school induces them to feel as though they are in a place for a business proposal. 학교에서 학생들을 오직 교육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마치 사업 제안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What teachers should keep in mind, then, is that students are not so much different from them at their age.

따라서 교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나이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They should be perceived and approached from almost the same standings.

그들은 거의 동일한 입장에서 이해되고 다가가야 한다.

As latent social actors, their educations must be focused on how to treat others by being placed at the bottom and learning how to cope with various interactions.

잠재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 그들의 교육은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periences they've gone through have something to do with societal fitness in further steps of socialization in class.

그들이 겪은 경험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이후 사회화 단계에서 사회적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

So as teachers, they should be the one who facilitates the idea of mutual accountability and who tell students how it is to be the opposite side of them.

따라서 교사는 상호 책임의 개념을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다.

2번 disparate - consideration

disparate는 이질적인, 전혀 다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다.

consideration(배려, 숙고)역시 지문의 responsibility(책임)와 의미가 어긋난다.

3번 similar - response

similar는 적절하지만, response(반응)는 지문의 mutual accountability(상호 책임)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4번 contrasting - self-reflection

contrasting(대조적인)은 지문 내용과 정반대이다. 학생들이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self-reflection(자기 성찰)은 지문에서 다루는 책임감의 개념과 맞지 않다.

5번 parallel - sympathy

parallel(평행한, 유사한)은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comparable보다는 덜 적절하다.

sympathy(공감)는 responsibility(책임감)을 강조하는 지문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정답: ①번

41, 42번

(어휘 분석)

coexist: 공존하다

Counts: 중요한

Pistol: 권총

Firepower: 화력

Relevant: 적절한

Medium: 매체

Recipient: 수신자

Interlocutor: 대화자

Utilitarian communication: 공리주의적 대화

Contemplate: 숙려하다

illuminate: 빛을 비추다, 분명히 하다

Temptation: 유혹

Mutual: 공동의

Utilitarianism: 공리주의

Communal: 공동의

Relevance: 적절성

(지문 분석)

Technology firms and service firms always coexist.

기술 회사와 서비스 회사는 항상 공존한다.

To meet customer demands, it is important to create high-quality products, and delivering those products to the right customers

(a)counts.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 그 제품을 알맞은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a)중요하다.

Think about it: an advanced ship engine with maximum energy efficiency would rarely be useful to people living in the middle of a desert.

생각해보라: 최대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첨단 선박 엔진은 사막 한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

Similarly, office workers in a skyscraper-filled city are more likely to seek the latest AI membership than a pistol with enhanced firepower.

마찬가지로, 고층 빌딩이 가득한 도시의 사무직 근무자들은 강화된 화력을 가진 권총보다 최신 AI 멤버십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질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맞은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기술 회사와 서비스 회사가 공존하는 이유이다.

The principle (b)applies to communication.

이 원칙은 의사소통에도 (b)적용된다.

A message must not only contain relevant information but also be delivered through an appropriate medium to a suitable recipient.

메시지는 적절한 정보를 포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합한 매체를 통해 알맞은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Even if consumers(interlocutors) demand the same message, the ways

of communication should be chosen based on their circumstances.

심지어 만약 소비자(대화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요구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방법은 그들의 상황을 바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It could be a text message or even a face-to-face conversation.

그것은 문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시지에 담긴 정보와 더불어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맞은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However, in today's world, we have become accustomed to (c)interactive communication methods due to the advancement of AI algorithms and various media platforms.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AI 알고리즘과 다양한 매체 플랫폼의 발달로 인

해 (c)*일방적인 대화 방법에 익숙해져왔다.

This may create the illusion of convenience for the speaker, but in reality, it causes information to lose its way.

이것은 발화자에게 편리함의 환각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보가 길을 잃게 만든다.

->좋은 메시지를 (상대방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알고리즘과 매체로 인해 일방적인 대화 방법에 익숙해져 왔으며, 일방적인 대화가 발화자에게는 편리하다는 환각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보가 (적절한 상대방을 찾아갈)길을 잃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As a result, the speaker's intention and the listener's needs are both left

unsatisfied, (d)violating the principle of "utilitarian communication."

결과적으로, 공리주의적 의사소통의 원칙을 (d)훼손하며, 발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필요가 모두 충족되지 못한다.

->발화자는 자신의 질 좋은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며 청자 또한 유익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일방적 대화는 이 둘을 전부 잃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를 준다. 따라서 이것이 공리주의적 의사소통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John Stuart Mill's statement, "The worth of a man is measured by the degree to which he thinks of the happiness of others." illuminates the importance of

contemplating the right manner of a delivering message.

존 스튜어트 밀의 명언,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고려하는 양으로 측정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숙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문장 또한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청자)를 고려해야 함을 나타낸다.

The temptation of momentary convenience may lead to the (e)loss of mutual benefit in communication.

순간적인 편리함의 유혹은 대화에서 공동의 이익의 (e)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순간적인 (발화자의)편리함이 결국 화자와 청자 모두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메시지가 질 높은 정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올바른 청자에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화자와 청자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공동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를 서술한다.

과거의 의사소통(부정)->현대의 의사소통(긍정)으로 전개되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알고리즘과 매체 플랫폼에 익숙해져 발생하는 메시지 전달의 허구성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지문이다. 독해 자체의 난이도는 평이하지만 '기술 회사와 서비스 회사->의사소통->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지문이었다. 글의 핵심 포인트는 제시된 여러 맥락을 파악하며 유기적으로 연결한 후에 도출되기 때문에 독자의 주도성과 문해력이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선지 분석-41번)

(1) Key To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Essential Information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핵심: 필수적인 정보

->지문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오답이다.

(2) Utilitarianism Challenged By The Proper Method

공리주의가 적절한 방법에게 도전받다

->지문에 따르면 적절한 방법은 오히려 공리주의에 도움이 되므로 오답이다.

(3) Effective Strategies To Persuade The Listener

청자를 설득하는 효율적인 전략

->지문에 청자를 설득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오답이다.

(4) The Quality Of Information That Determines Communal Profit
공동의 이익을 결정하는 정보의 질
->지문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 정보의 질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상대방의 적절함을 강조하므로 오답이다.

(5) How Considerations Of Relevance Contributes To Mutual Benefit
어떻게 적절함에 대한 고려가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가
(정보 전달 수단과 대상의)적절함에 대한 고려가 (청자와 화자의) 공동에 이익에 기여하는 과정을 서술한 글이므로 5번이 정답이 된다.

(오답 선지 분석-42번)

우리가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발화자가 편리의 환각에 빠져 적절한 수단과 대상을 고려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c)의 interactive를 one-way로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일반적으로 짧은 맥락 안에서의 대립구도 파악을 요구하는 형식의 42번 문제와 달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독특한 문제였다.

43번

주어진 글(A)에서는 Liam이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실망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후의 전개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순서를 정할 수 있다.

(C)에서 Liam이 친구 Mark의 제안으로 벽화를 그리게 된다.

(D)에서 벽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유명한 미술 비평가 David가 이를 보고 글을 쓴다.

(B)에서 David의 글을 본 갤러리가 Liam에게 전시회를 열어주며 꿈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C) -> (D) -> (B) 이다.

44번 문제 해설

(a)~(e) 중에서 지칭 대상이 다른 것을 찾는 문제이다.

(a) he -> Liam (작품이 주목받지 못해 실망함)

(b) his -> Liam (Liam의 노력)

(c) he -> Liam (꿈을 이룸)

(d) he -> Liam (벽화를 그림)

(e) He -> David (미술 비평가로서 Liam의 작품을 보고 감탄함)

나머지는 모두 Liam을 가리키지만, (e)만 David를 가리키므로 정답은 5번 (e) 이다.

45번 문제 해설

각 선지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자.

1. O Liam은 작품이 주목받지 못해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다.(A에 해당)

2. O Mark는 Liam에게 벽화 그리기를 제안했다. (C에 해당)

3. X David는 Liam과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가 아니라, 그의 작품을 보고 감명 받은 미술 비평가이다. (D에 해당)

4. O Liam의 벽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유명해졌다. (D에 해당)

5. O Liam의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B에 해당)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핵심 어휘)

reject 거부하다

stimulus 자극

pay off 성공하다

exhibition 전시

influential 영향력있는

struggle 몸부림치다

passerby 지나가는 사람